

고흥 황금 개체굴, 수출길 올라... 세계로 향하는 고흥 수산물

연말까지 180톤, 75만 달러 규모 수출 목표... 전국 1위 개체굴 수출지 도약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4일 고흥 녹동 신항에서 황금 개체굴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열고, 고흥 수산물의 세계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총 7톤, 2만 6천 달러(한화 약 3,500만 원) 규모로, 중국 사면시에 본사를 둔 굴 가공·유통 전문기업 푸젠여유이자 수산유한공사를 통해 현지 고급 레스토랑 식재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황금개체굴은 고흥군이 2023년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하고 상표 등록 및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한 프리미엄 수산물이다. 일반 자연산 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육질이 쫄깃하며, 연중 대량 생산이 가

능해 수출 효과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흥군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남해안 갯벌의 청정 해역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굴을 양식하고 있어,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상차식에서 “이번 수출은 고흥군이 국내를 넘어 세계 속 수산물 중심지로 도약하는 상징적 출발”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시장을 넓혀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흥군은 이번 초도 수출(7톤)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는 매주 1컨테



이너(7톤) 씩, 연말까지 총 180톤(약 75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수입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황금개체굴을 비롯 한 지역 특산 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세계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유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야호~ 다시 돌아온 강진 반값여행 “꼭 간다”

3대 물놀이장·마랑놀토수산물시장·가우도 명소 가득

반값여행의 원조 ‘강진 반값여행’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돌아왔다.

전국적인 ‘반값’ 열풍을 일으킨 강진군의 대표 관광정책 ‘강진 반값여행’이 울려퍼, 다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사업 개시 단 4개월 만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1차 종료됐던 이 사업은 군민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7월 1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강진 반값여행’은 전국 최초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관광정책이다. 강진을 여행하며 지역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강진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gangjintour.com)를 통해 여

행 당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제출한 번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을 신청하면 최대 당일 이내에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강진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 사진과, 강진 내 소비 영수증이다.

여름휴가와 여름방학은 반값으로, 3대 물놀이장부터 가우도 야간 콘텐츠까지, 즐길거리 꽉 찼다. 울려퍼, 친구·연인·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푹푹하게 강진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

무더위를 날릴 강진 3대 물놀이장인 강진읍내 보은산 V랜드, 칠랑면 초당림, 도암면 석문공원은 7월19일 개장 8월17일까지 운영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전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 청년농업인 맞춤형 현장 교육

시설하우스 현장 교육으로 실무 역량 강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9일 담양군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과정 교육생 24명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비슷한 또래의 청년농업인의 영농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설하우스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년농장 4개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무정면의 권도훈 농가는 수경재배 딸기 연동하우스 운영 사례를, 월산면의 박소정 농가는 꽃차용

메리골드 재배 하우스를 소개했다.

대전면 진상현 농가는 멜론 재배 단동 하우스, 수북면 김현배 농가는 백향과(패션프루트) 재배 시설하우스를 공개하며 각각의 시행착오의 어려웠던 점과 시설하우스 운영 노하우, 그리고 농산물 판로 확보 전략을 공유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교육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현장 교육이 청년농업인들의 진로 설정과 창농 준



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 과정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며, 연중 이론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차세대 농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동화의 매력에 푹” 장성군 28일 ‘동화나라 버베나축제’

동화면 램프공원... 공연, 체험, ‘숲속여가’ 프로그램 등 마련

장성군 동화면이 오는 28일 램프공원(남평리 236-1) 일원에서 ‘제2회 동화나라 버베나축제’를 연다.

동화면은 지난해부터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다년초식물 ‘버베나’를 램프공원에 심고 소규모 마을축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 축제는 볼거리·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난타, 라인댄스, 고고장구, 동화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 번갈, 퓨전 앙상블, 트로트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동화나라 테마의상 체험, 포토존, 방장산 휴양림과 연계한 손수건 염색, 꽃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소나무쉼터에서는 음악, 야생화 염색 채색, 시 낭송 등 깊이 있는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숲속여가’ 행사가 기다린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축제의 주인공인 ‘버베나’다. 개화 시기를 잘 맞춘



덕분에 일찍부터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동화면은 앞선 4월부터 민민, 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힘을 합쳐 버베나, 백일홍 등을 심으며 축제를 준비해 왔다. 물주기, 풀베기 등 축제장 관리는 동화면 청년회가 맡았다. 장성/황해연 기자

진도군, 청사 앞 ‘생활 속 녹색 휴게공간’ 조성

진도군은 청사 앞에 방치됐던 유휴지를 최근 자연 친화적인 녹색 휴게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군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휴지는 콘크리트 바닥과 계단만 설치된 단조로운 구조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이번 소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휴식 공간에는 ▲원형 정원과 안개분수 ▲계절감 있는 화초류·관목 식재 화단 ▲다채로운 열대풍 화분과 화사한 관람석(스탠드 계단) 등이 설치됐다.

특히 안개분수는 여름철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기온 완화 효과와 더불어 시각적 청량감을 제공하는 등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단에는 루드베키아, 수국, 소철, 남천, 황금사철, 루피너스 등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가 식재돼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호피석으로 조성된 관람석

은 입체적인 경관과 이용자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단순한 공간이 군민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공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하며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곡성군, 농번기 맞아 관내 농가 일손 돕기 집중추진

곡성군은 농정과(과장 우희정)는 최근 오크면 봉조리 소재 고령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일손 돕기에는 농정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직접 매실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날 대상 농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작기에 매실 수확을 마치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아침부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손발이 되었다.

곡성군은 농번기 동안 균형 산하 전 직원과 관내 유관기관이 협력해 일손이 취약한 고령농가, 영세농가, 장애농가 등 농가별 맞춤형 인력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

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45일간 사과 적과, 매실 수확, 감자 수확, 배봉지 씨우기 등 다양한 농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농촌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농번기 철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일손돕기

가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해 작기 영농 지원과 일손 부족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곡성/이경수 기자

